

美, ‘한국車 관세 15%’ 발효…“11월 1일부터 소급”

항공기·부품, 11월 14일자 소급 인하…한미협상 일단락

‘3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관세인하 합의’ 이행 국면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이 3일(현지시

간) 미국 연방 정부 관보에 게재됐다.

이는 온라인 관보를 통한 사전 게재로,

공보 게재는 4일 이뤄진다.

관보 공식 게재일인 4일 발효되는 미국

의 대(對) 한국 자동차 관세 15%는 지난

달 1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며,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된 자

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적용된다.

이로써 지난 4월 시작된 한미간 관세·무역·투자 협상이 일단락되면서 한국의 3500억달러(약 512조원) 규모 대미투자와 미국의 대한국 관세 인하 등을 서로 주고 받는 합의가 이행 국면으로 들어가게 됐다.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일명 상호관세)를 15%(총판 25%)로 인하하는 내용도 관보에 포함됐다.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원목과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지난달 14일 0

시 1분 기준으로 소급 인하된다.

항공기와 그 부품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의 민간항공기교역 합의 적용을 받는 제품 중 무인기를 제외하고는 상호 관세와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관세를 면제한다.

원목과 목재, 목제품에 대한 품목 관세는 최대 15%로 조정된다.

소급 인하된 관세율은 미국의 통일관세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를 수정해 반영된다.

이번 관세 소급 인하는 한미가 지난달

13일(한국시간 14일) 정상회담(10월29

일·경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이하

팩트시트)의 후속 조치다.

안보와 무역 합의를 포괄한 팩트시트는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한국의 우리농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지원 또는 승인키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은 지난달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

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소급 적용이 실행됐다.

연합뉴스



대형 화재가 발생한 홍콩 북부 타이포의 아파트 단지 ‘왕 폭 코트’ 인근에서 한 시민이 희생자들을弔慰하고 있다.

오픈AI, 스타트업 네뷸러 인수

홍콩 화재참사 ‘사망자 159명’으로 늘어

구글의 추격을 받는 오픈AI가 챗GPT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 모델 훈련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스타트업 인수에 나섰다. 오픈AI는 폴란드에 본사를 둔 AI 스타트업 네뷸러AI를 인수한다고 3일(현지시

간) 밝혔다.

네뷸러AI는 AI 모델의 훈련 과정을 감독·분석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발견하는데 도움을 주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이다. 다만 양사는 인수 가격을 비롯해 이번 거래의 구체적인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1세부터 97세까지 참변

명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나머지 19명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확인된 사망자 중 남성은 49명, 여성은 91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는 생후 1세 영아부터 97세 고령자까지 다양하다.

현지 소방관 1명, 외국인 기사도우미 10명, 현장 근로자 5명도 포함됐다. 부상자는 모두 79명으로 이 가운데 37명은 여전히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중상자 4명은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종자도 31명에 달해 사망자는 더 늘

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화재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 50분께 홍콩 북부 타이포에 있는 32층짜리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해 건조한 날씨와 강풍 속에 43시간 넘게 진화 작업이 이어졌다.

당시 단지 내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창문을 가린 스티로폼 등 가연성 자재가 불길 확산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층 건설 현장에서 흔히 쓰는 대나무 비계(건설현장에서 고층 작업을 하기 위해 설치하는 임시 구조물)와 작동하지 않은 화재 경보 시스템도 초기 대응을 어렵게 했다.

연합뉴스

컨설팅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



